



‘선분양 전환’ 중앙공원1지구 개발 ‘최종 분양가’ 관심

시민 공청회·내일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새로운 협약’ 체결
 姜시장 “사업자 이익·분양가 낮추고 공공기여 늘릴 것”
 타당성 검증 제시 평당 2천425만원비 추가 인하 주목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가 선분양 전환으로 얻을 이익을 분양가 인하, 공공기여 확대 등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타당성 검증에서 도출된 분양가(3.3㎡당 2천425만원) 대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용적률 상향(14.27%)으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 선분양 재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1조900억원 추정) 등 3개 조건을 분양가와 공공기여에 반영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금융비용 차액은 당연히 전액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고,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 감면액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며 “시행사·시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인하와 공공기여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타당성 검증에서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후분양(3천495만~3천822만원) 대비 큰 폭으로 낮아진 2천425만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강 시장의 이 같은 방향 설정으로 분양가는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여와 관련, 사업자인 빙그레중앙공원개발은 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광주시는 특히 시비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타당성 검증 결과 요약본, 총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 6일 공개토론회, 18일 전문가 검증 회의, 2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등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했다.

“공개 자료가 압축된 자료여서 공사비 등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질문에 강 시장은 “공사비의 평당 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거나 LH에서 지금 평당 단가라고 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단가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자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26일 오후 6시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협상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또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이어져 온 논란은 마침표를 찍고 풍안호수, 어린이 상상 놀이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과 함께 광주를 지키는 도시 숲으로, 모두가 즐기는 명품 공원으로 완성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공익 감사 3번과 경찰 수사에서 모두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으며 공무원 6명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1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건은 광주시가 소송 당사자다. /박성강 기자



광주·전남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식이 26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김애리 기자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

광주·전남 각 분야 리더들에게 분야별 최신 트렌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식이 26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개강식에는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과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이정배 창조클럽 총동창회장 및 간부,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아카데미 원수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마형렬 회장은 개회사에서 “광주매일신문에서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창

각 분야 명강사 포진...창조·혁신마인드 함양 최적화
 마형렬 회장 “소통·지식 습득 의미 있는 학습의 장”

조클럽 아카데미는 지역의 경영자들과 각계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학습의 장이 됐다”며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마 회장은 “원수들간 소통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상부상조함으로써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이끄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올해의 주인공인 11기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영식 남부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웃음으로 소통하라’는 특강을 통해 AI 기술이 인간의 웃음을 분석하고 마음의 병을 진단·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강에 이어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수 소개와 공지사항·교육 일정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강사진

은 과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 이승재 영화평론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임진모 음악평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광주 전남 지역 현안과 시대 이슈를 심도있게 파악·분석하고 리더들이 가져야 할 창조·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전남 각 분야 CEO 및 주요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11기까지 이어져 온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지식 향유의 장을 펼칠 전망이다. /정은슬 기자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등 광주 공약 발표

총선 D-14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6일 청년주거·차매 국가책임제 시행 등 광주지역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과 8개 선거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내일 5·18민주광장서 선대위 출범식

데 기자회견을 갖고 5개 광주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지역 주요 공약은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 시행 ▲차매 국가책임제 시행 ▲전 국민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급 ▲광주 도시 전체 X-MAS 실증도시 조성 ▲

세남권 최대 광주 창업밸리 조성이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시당과 후보들의 약속을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반

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4월 10일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광주시민, 당원동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오전 10시 5·18민주광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강 기자

Today
 전남보건의료·지소 39곳 의사공백 2면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9면
 이정후, MLB 첫 상대는 다르빗슈 16면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에너지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